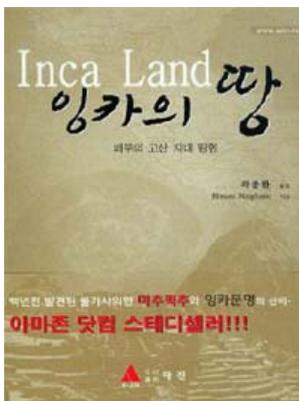




■ 잉카의 땅



원제: Inca Land (1922)
 하이럼 빙엄 (지은이) | 곽종환 (옮긴이)
 출판사: 아진
 출간일: 2009-06-10
 ISBN(13): 9788957612798
 양장본 | 350쪽 | 257*188mm (B5)

1911년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빙엄(Hiram Bingham, 1875~1956)의 고전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빙엄은 탐험을 통해 알게 페루 남부지방의 잉카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정보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페루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책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사실 마추픽추(케추아어로는 ‘옛 봉우리’라는 뜻)는 빙엄이 ‘발견’하기 이전부터 원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던 유적지였다. 그런데 마치 원주민의 정보와 지식은 서구인이 습득하기 전까지는 참다운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는 듯이 빙엄은 마추픽추를 발견하고, 앤젤(Jimmie Angel)은 양헬 폭포를 발견했다고 얘기한다. 최근 페루 정부는 이 시기 빙엄이 수집하고 예일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잉카의 유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약 4천 점의 유물은 되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 대홍수



이성형 (지은이)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09-11-05

ISBN(13): 9788976827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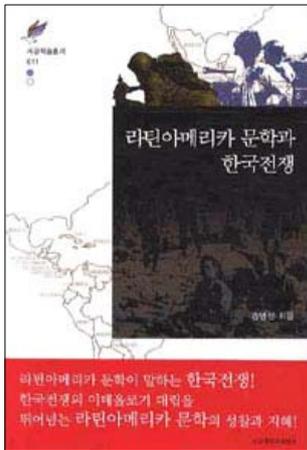
반양장본 | 496쪽 | 221*151mm

1982년 라틴아메리카를 덮친 외채위기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술이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개혁 실시 등, IMF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처방에 따라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의 실험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빵과 일자리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눈물의 계곡’을 지나면 빵과 우유와 치즈가 있다는 게 신자유주의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빵을 주기는커녕 경제난이 가중돼, 갖고 있는 접시마저 내다 팔아야 할 판이었다. 이로써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고, 멕시코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걸고 미국과의 국경을 넘어야 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선 지난 20년의 과정을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삶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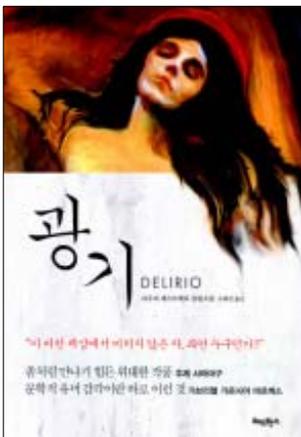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한국전쟁



송병선 (지은이)
출판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출간일: 2009-11-03
ISBN(13): 9788972731542
223*152mm (A5신)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참전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콜롬비아이다.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대외 전쟁에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콜롬비아는 어떻게 이런 전통을 깨뜨리고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며,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를 다양한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한 학술서적이다.

■ 광기



원제: Delirio (2004)
라우라 레스트레포 (지은이) | 유혜경 (옮긴이)
출판사: 레드박스
출간일: 2009-10-01
ISBN(13): 9788989456124
양장본 | 408쪽 | 194*136mm

소설은 콜롬비아의 비극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광기 어린 상황의 꺾뎀을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의 광기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발한다.